

# 전남 수출 효자 '양파'... 지난해 수출량 7.7배 ↑

### 전남 30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5552t 수출... 전국 생산단지 15.3% 차지 양파 지난해 184t 수출 전년비 665.4% 상승... 단감·버섯 등 증가세

전남 30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서 지난해 양파 수출량이 7.7배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과 단감 등도 증가 추세였고, 수국과 심비디움 등 화훼류 생산단지의 선전은 코로나19 충격을 다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남 30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지난해 잠정 수출량(화훼류 제외)은 이달 기준 5552t(11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생산단지에 한정된 수출실적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잠정 집계됐다.

일부 단지의 수출량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년(6524t)의 85.1%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전년보다 수출량이 늘어난 품목은 양파와 버섯류, 단감 등이었다.

지난해 양파 생산단지 수출량은 184t으로 전년(24t)의 7.7배(665.4%)로 뛰었다. 만가닥버섯 수출량은 127t으로 1년 전(90t)보다 41.6% 증가

했고, 팽이버섯은 1090t에서 1369t으로 25.6%(279t) 늘어났다. 단감 생산단지 수출량도 30t(2018년)→41t(2019년)→53t(2020년) 등 1년 새 29.8%(12t) 증가했다.

전남에는 심비디움과 수국 생산단지가 1곳씩 있는데, 이들 단지의 2019년 수출량은 각각 1만 2507본, 9만8000본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심비디움은 67.0%(5028본), 수국은 46.3%(3만1000본)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행사 수요를 농민 화훼 농가 판로를 해외로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남에는 전국 생산단지 196곳의 15.3% 수준인 30개가 분포돼 있다. 파프리카 단지가 5곳으로 가장 많고, 딸기 4곳, 토마토 4곳, 배 3곳, 팽이버섯 3곳, 멜론 2곳, 새송이버섯 2곳 등이 있다. 쌀, 단감, 만가닥버섯, 키위, 양파, 심비디움, 수국 단지는 1곳씩 있다.

전국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2018년 170곳, 2019년 185곳, 2020년 196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국 12개 사·도 196개 생산단지에 대해 이달 기준 집계된 2020년 수출량(화훼류 제외)은 총 6만9364t으로, 경남(2만6267t)이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1만1617t), 강원(9682t), 충남(5800t), 전남(5552t), 전북(3492t), 경기(2946t), 제주(1941t), 충북(1599t), 울산(262t), 세종(203t), 부산(66t) 순으로 나타났다.

aT는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올린 데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통합조직과 수출선도조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수출 품목조직의 추가 결성을 통해 글로벌 수출경쟁력 기반조성에 나선다.

먼저 수출장구 단일화를 위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함께 뜻을 모아 설립한 6개의 수출통합조직은 올해부터 자체 수입사업 발굴을 위한 지원과 자체 조성한 기금의 중장기 적립과 활용을 유도하는 등 홀로서기를 위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파프리카와 버섯, 딸기 등 6개가 운영되고 있는 수출통합조직은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부

터 선별, 포장, 해외마케팅까지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전국 196개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영농일지 작성, 입출고 및 수출현황 입력 등 농집(NongZip)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와 함께 조직화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농산물의 생산-수출이력관리를 위한 농집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가 외에도 일반 수출농가나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선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예로사항에 사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농집을 앞으로는 종합적인 디지털 수출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원군 aT 식품수출이사는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된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탄탄한 수출관련 조직들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aT는 올해도 수출자금 지원과 해외 공동 물류센터 운영, 해외운송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의 걸림돌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대한민국은 할인 중 돌아온 '대한민국 농할' 27일까지 달걀 20% 할인

대형 유통매장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과 배추, 무를 20% 할인가격에 선보인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형마트는 오는 27일까지 13일 동안 달걀과 배추, 무를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참여매장은 전국 이마트와 롯데마트, 롯데슈퍼 등이며 1인당 최대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마트 모든 점포는 행사 기간 동안 신세계 포인트 적립 고객에 한해 달걀 50종, 무, 배추를 20% 할인해준다. 이마트는 다른 농산물도 할인 품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엘포인트 회원이 롯데, 신한, 현대 등 7개 카드사 카드로 결제 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계란은 판매 수량이 1인당 3판으로 제한된다. 배추와 무는 20% 할인된 가격인 각 1260원에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대한민국 수산대전'

### 제철 수산물 최대 50%

### 2월10일까지 설맞이 특별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제철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행사를 벌인다.

해양수산부는 연중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의 하나로 18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설맞이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통시장부터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생활협동조합, 수산유통 창업기업 등 수산물 주요 판매처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쿠팡,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라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공동체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안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20% 할인에 추가로 자체 할인을 더해 최종 30~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 2000명 무료 지원

###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 신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전남도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 2000여 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년 동안 8500여 명의 소상공인을 거처했다.

센터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세무·노무관리 기초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무료 홈페이지 제작 등 '원스톱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매장관리, 메뉴개발 등 사업 비법을 전수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계속된다. 모든 서비스는 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해남에 있는 6개 전남신보 지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까지 전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1577-9616)에서도 불공정 거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유자 최대 주산지 고흥 한파 피해 실태점검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최근 고흥군 풍양면 유자 농가를 찾아 한파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유자 최대 주산지인 고흥군 풍양면에 한파 피해가 발생해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박서홍이 농가를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박서홍 본부장과 최윤선 농협 고흥군지부장, 박미화 풍양농협 조합장 등이 최근 고흥군 풍양면 유자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

을 살폈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은 전국 유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2019년 고흥 유자 생산량은 3355t으로, 전국(5067t)의 66.2%를 차지해 역대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고흥에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주기로 동해가

발생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이번 겨울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왔다. 유자나무는 겨울철에 영하 9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 전남본부는 남은 동절기 동안 추가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자나무에 수분과 영양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전화 (053)951-3080

동양회원권거래소      팩스 (053)944-3080